

청탁금지법 이후 소상공인 영업환경 '악화'

경영실태 조사 결과... 66.5% '어려워졌다' 응답 매출액·영업이익 16.3% 급감 법 개선 목소리 높아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갈수록 악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종업원 수를 줄이고 고용저하, 실업 발생 등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이후 소규모 사업체(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행 전에 비해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응답비율이 66.5%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응답비율 59.8%에 비해 6.7%나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 소규모 사업체 10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9월 2473만 8000원이던 소규모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시행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2356만9000원으로 4.97% 줄었고, 지난 3월에는 2266만1000원으로 3.61%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소상공인이 7.9% 감소 후 0.3% 증가한 반면 소기업은 0.7% 감소에서 11.3% 감소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익 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시행 전인 지난해 9월만 해도 월평균 489만1400원에 달하던 영업이익 규모가 지난해 12월에는 451만3000원으로

7.3% 줄었고 지난 3월에는 409만 8000원으로 다시 9.20%나 급감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소상공인이 시행 후 3개월 후 12.1%, 6개월 후에는 10.0% 줄었고 소기업은 3개월은 변화가 없었지만 6개월 후엔 20.6% 감소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자구책으로 종업원 수를 줄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평균 2.55명이던 종업원 수가 3개월 후에는 2.31명으로 줄었고 6개월 후에는 2.09명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12월 35.6%이던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지난해 3월에는 30.1%로 줄어든 반면 '효과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지난해 12월 39.2%에

서 39.9%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법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62.8%에서 64.0%로 증가했고, 현행 가액범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66.4%에서 78.4%로 높아졌다. 상한선은 음식물 6만원, 선물 11만원, 경조사비는 12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개선에 대해 '법 시행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현행 법 및 시행령 개정에 신중해야 하고, 농축산업이나 화훼업 등을 비롯해 보유했던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 절차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LH전북본부, 진안서 청소년 사랑나눔행사 실시

LH전북본부는 7일 진안지역 복지소외의 지역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LH, 진안YMCA, 진안군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해 진안군내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청소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전달, 공연 및 식사제공, 김장담기 및 나눔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담은 400포기의 김치는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에 배부됐다.

김원희 본부장은 "복지에서 소외받

는 청소년들이 올곧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연내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해 자체 브랜드인 '나눔 플러스'를 개발하고, '행복 나누기, 희망 더하기'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우리 맛닭'으로 보양식 준비 어떨까

농진청, "성인병 예방·체지방 억제해 주는 생리활성물질 풍부"

이번 말복엔 토종닭으로 든든하면서도 가벼운 보양식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토종닭인 '우리맛닭'의 육질을 분석한 결과, 성인병을 예방하고 체지방을 억제해 주는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우리맛닭'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1992년부터 15년간 품종을 복원한 토종닭 가운데, 맛

좋은 종자, '알 잘 낳는 종자', '성장 빠른 종자'를 교배해 만든 토종닭 새로운 품종이다.

육계보다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껍질이 얇고 지방이 적으며 삶았을 때 토종닭 특유의 구수한 국물 맛이 난다. 골라겐 함량이 높아 육질도 좋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서울대학교 조철훈 교수팀과 함께 '우리맛닭'의 객관적인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부위별 육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맛닭' 가슴 부분은 시중에 판매되는 육계에 비해 '카르노신'과 '안세린'이 최대 43% 더 함유돼 있었다.

또한, 다리 부분에서는 '안세린'이 최대 50%, '카르노신'은 최대 169% 더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카르노신'과 '안세린'은 성인병(당뇨 등) 예방효과가 뛰어난 물질이고, '카르니틴'은 지방 대사를

촉진해 체지방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된 물질이다.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 허강년 농업연구사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맛닭 뿐만 아니라 닭과 향, 영양이 우수한 토종닭의 시장 확대와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맛닭' 생고기(백숙용, 닭볶음탕용)와 가공품(삼계탕, 훈제)은 누리상가(인터넷 쇼핑몰)나 대형할인점(대형마트) 등 시중에 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무협, 글로벌물류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오는 9월 개강하는 26기 글로벌물류 최고경영자과정(GLMP)에 참여할 신입 교육생을 모집한다.

GLMP는 한국무역협회가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융복합 시대를 선도할 리더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05년에 개설한 물류업계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올해 상반기, 수료자 1,000명을 돌파한 GLMP는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물류업계 최고경영자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생들은 해상·항공물류, 최신 물류혁신기업과 물류 트렌드, 선진물류사례 등 시대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이수하게 되며 이론과정 후에는 직접 해외 물류현장 탐방을 통해 글로벌 물류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과정 이수 후에는 한국무역협회 회장 및 인하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받게 된다.

참가신청은 GLMP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인재용 기자

경진원, FTA실무·원산지실무사 양성 교육 진행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FTA 전문인력 확대를 위해 7일부터 11일까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FTA실무교육'과 '원산지실무사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원산지실무사 양성교육은 경진원에서 산업통상지원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교육사업으로 무역실무 및 FTA 기본 교육을 통해 도내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양성해 도내기업의 해외 원자재 수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

이다.

이번 교육은 익산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에서 무역직무를 희망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일정에 따라 FTA원산지 이론, FTA원산지 실무,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활용 순으로 원산지 실무사 시험 커리큘럼과 동일하게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과정 수료생들은 오는 26일과 11월 25일에 있을 제5회 및 제6회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

이다. /인재용 기자

한전 무주지사, 찾아가는 고객 만족 센터 운영

한국전력 무주지사는 지난 5일 '제26회 부남면민의 날' 강변축제장에서 찾아가는 고객 만족 센터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전 직원들은 무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발전 체험, 누전차단기 작동 요령 등 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 전기의 발생 원리 및 안전한 전기사용의 중요성을 체감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음료와 물티슈, 부

채를 나눠주면서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기요금 할인 제도 및 신청 방법, 각종 전기안전 정보 등을 안내했다.

인수홍 지사장은 "앞으로도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해 고객과의 현장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전기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